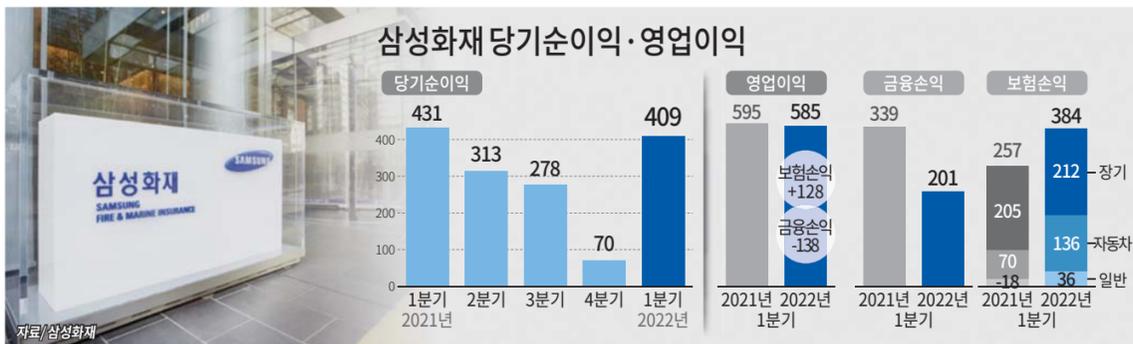


# 삼성화재 분기매출 4.9조... 전년비 0.7% ↑ '매출 회복세'

**삼성화재, 1분기 실적 발표**  
영업익 5852억, 1.7% 줄어들어  
일회성이익 제외 당기순익 28% ↑

전체손해율 78.7%로 3.3%p 감소  
백내장 등 실손손해액 단기간 급증



나 작년 하반기보다는 매출 회복세가 뚜렷했다. 특히 ▲건강보험 ▲질병보험 ▲자녀보험 등 계약자서비스마진(CSM) 고수익 상품의 신계약 내 비중이 확대됐다.

홍성우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은 "미래 수익 재원 확보를 위해 대면 판매 조직의 영업 활동을 회복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신계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유지 등 효율 제고 노력을 지속해 보장보험료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손해율은 전년 대비 축소됐지만 항목별로는 엇갈린 모습이다.

1분기 전체 손해율이 78.7%로 전년 대비 3.3%포인트(p) 감소했다. 일반보험의 손해율은 전년 동기보다 17.8%p

나 줄었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각각 0.4%p, 5.4%p 개선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격리 인구 증가로 사고율이 감소하며 전년비 4.7%p 하락한 90.1%의 합산 비율을 기록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영업에 따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의미다.

홍 실장은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개선으로 최근 시장은 매출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회사는 우량계약 중심의 매출 전략을 견제할 것"이라며 "또한 2분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생활 재개에 따른 손해를 상상에 대비해 지속적인 보상 업무 효율 개선과 손해액 관리 강화를 통해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했다.

삼성화재는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독자 플랫폼인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을 기반으로 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지난달 런칭한 삼성금융사 통합 플랫폼 모니모를 통한 새로운 고객 유입도 기대했다.

고기호 삼성화재 디지털추진팀장은 "지속해서 미니보험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일상생활 중에 가볍게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형 미니보험을 출시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지금 있는 라인업보다 상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향후 백내장 등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 1분기 삼성화재의 위험손해율은 백내장 등 실손 손해액이 단기간 급증하며 전년 대비 1.5%p 상승한 88.1%를 기록했다. 다만 4월 이후 감독기관의 보험금 지급 강화 조치 및 회사의 자구적인 실손보험금 심사 강화로 손해율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근배 삼성화재 장기본부전략팀장은 "3월에 백내장 청구 건수 증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 대비해서 최소한 4배 이상의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가 발생했다"라며 "그렇지만 당사와 업계 그다음에 감독 당국의 공조 노력으로 4월에 급격히 안정화가 되고 있고, 4월에는 올해 초의 수준만큼으로 급격히 안정화가 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내장 이후에도 제2의 백내장이 나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제의 백내장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대비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감독 당국과 함께 공조가 되고 있지만 보험사기 예방 모범 기준의 시행에 따라서 이러한 청구 확산 억제 및 지속적인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37.8억 달러 '증발'

한은,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美 긴축강화 전망에 투자심리 위축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을 이어갔다. 미 연준의 긴축 강화 등이 예상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2일 내놓은 '2022년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37억8000만달러(약 4조8546억원) 순유출됐다. 주식자금은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순유출이 지속됐다. 채권자금은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330억2000만달러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sup>1)</sup>) (기간중, 억달러)

구분	20년	21년	12월	22년	1월	2월	3월	4월
전체	34.7	387.1	85.4	32.1	49.7	16.4	-33.9	-37.8
(주식 <sup>2)</sup> )	-182.4	-174.4	36.9	-39.8	18.1	-18.6	-39.3	-42.6
(채권 <sup>3)</sup> )	217.1	561.5	48.5	71.9	31.6	34.9	5.4	4.7

주: 1) 결재일 기준 2) 상장주식(KOSPI·KOSDAQ)의 장내·외거래 및 기업공개(IPO) 포함(단, ETF·ELW·ETN 등은 제외) 3) 상장채권 장내·외거래 기준(RP 거래 및 만기도래반영)

전월(306억6000만달러)에 비해 23억6000만달러 늘었다. 외환스왑 거래(+22억7000만달러)가 증가를 주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5월 10일 기준 1276.4원까지 올랐다.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 중국의 봉쇄조치 확대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 지속, 외국인의 국내주식 배당금 및 매도자금 환전수요 등의 영향 등에 따라다. 환율 변동성은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전일 대비 변동폭은 지난 3월 6.9원에서 5.1원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변동률은 0.41%로 축소됐다.

국가의 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외평채 5년물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은 지난달 33bp(1bp=0.01%포인트)로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CDS는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부도위험도 낮다는 의미다. /백지연 기자

## 시중에 풀린 돈 3년여 만에 첫 감소세

광의통화량 3658.5조... 0.1% 줄어

시중에 풀린 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8년 9월 이후 첫 감소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2년 3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658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0.1%) 줄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이상 M1)을 비롯해 머니마켓펀드(MMF)·2년미만 정기예·적금·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

상품이 포함된다.

시중 통화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19년 4월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왔다.

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8조2000억원) ▲수익증권(+5조6000억원)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전신탁(-10조5000억원) ▲MMF(-8조9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에서 각각 15조2000억원, 12조1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기타금융기관에서 23조2000억원 축소됐다.

/백지연 기자

## 인행 주담대 금리 5%... 대출자들 '한숨'

5년 만기 은행채 금리 8년만에 최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7% 육박

시중은행에 이어 중저금리를 내세운 인터넷은행(인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며 대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을 맞아 시중은행은 주담대 만기 연장에 나서고 인행은 중저금리를 앞세워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7%에 육박하고 있고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5%대까지 치솟고 있다.

카카오뱅크(카뱅)는 지난 2월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첫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카뱅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대출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도 유력해졌다. 금리 상승 압력이 불가피해졌다.

최저금리를 앞세운 카뱅의 주담대 금리상단은 최근 5%를 넘어섰다. 출시 당시 4% 초반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달 반 만에 0.8%p 넘게 오른 셈이다.

특히 현재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2013년 12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에 카뱅이 자유적금과 정기예금 등의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만에 케이뱅크까지 수신 상품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6일부터 수신 상품금리를 최대 0.4%p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코드K정기예금은 1년 만기 기준 0.3%p 올라 연 2.4%의 금리를, 3년 만기 기준으로는 0.4%p 오른 연 2.8%의 금리를 제공한다. 코드K자유적금의 경우 1년 만기는 연 2.6%, 3년 만기는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신한은행, 자금세탁 방지 'S-TBML' 구축

무역 빅데이터 기반 이상거래 감지

신한은행은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Trade Based Money Laundering)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환거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S-TBML(Shinhan-Trade Based Money Laundering)'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S-TBML'이란 무역·외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금세탁 및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무역거래 상대방 및 실소유자 점검 ▲특이거래점검 ▲무역서류 정밀점검 등 외환거래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제재 리스크 및 이상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무역기



/신한은행

반 자금세탁 점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한DS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구축 기술을 활용해 외환거래 디지털 감시 플랫폼을 개발했다. 지난해 9월에는 AI(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접목해 경제제재(Sanction) 자동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